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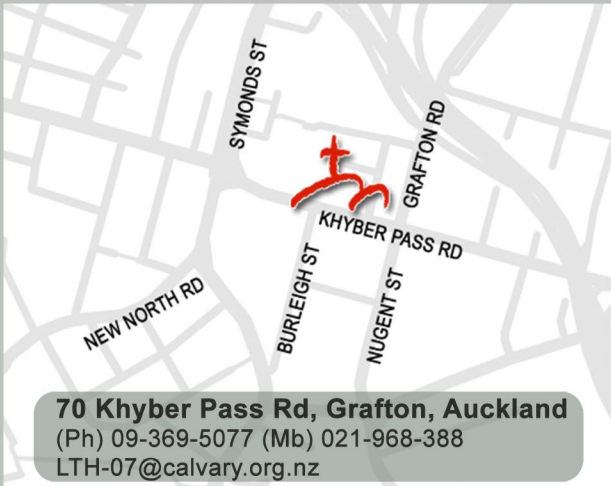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 잔치에 우선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량 안내 협조 - 2, 3 남선교회 / 주일 정장 차림)  
일시: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2시 30분)  
주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 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 2019년 하반기 성경읽기를 월요일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통독이 아닌 정독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는 창세기 1-21장까지입니다. 방법: 매일 3장씩
- 1 여선교회 주관 거리 찬양 전도가 오는 8월 3일(토) 오후 3시에 아오테아 광장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찬양 연습, 차량봉사 필요)
- 청소년부 일일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 (사경회 참석) 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이번주 금요 새벽 기도회는 말씀 사경회 관계로 없습니다.
- 추억의 사진을 보고 누군지 다음 주일까지 적어 제출하기 바랍니다. 모두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7월 사역일지 및 예배안내]

- 19(금)-21(주일) 말씀 사경회
- 21일 (주일) 창립주일
- 31일 (수) 공동체 주관 수요 예배 (차드)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에베소서 5:19-21	인도자
찬송	36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9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35:1-15	인도자
찬양대찬양	하늘아 기쁨으로 노래하라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지금, 벨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456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8시 15분
기도	장연식 집사	금주기도	김다운 자매
성경봉독	창세기 5:21-24	다음주일	창립주일 연합
설교	[예능, 하나님의 기쁨]		
	이태한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384장		
주기도	다같이		

[7월 기도 순서]

- 7월 21일 (주일) / 박덕철 장로
- 7월 24일 (수) / 김은희 집사
- 7월 28일 (주일) / 박병민 장로
- 7월 31일 (수) / 김자경 권사

[7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김철재, 허영순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7/14  
21권 28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분주한 6월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행한 사역들 함께 나눕니다.

고철 팔아 모은 돈

그동안 아이들이 모은 캔 5부대, 구리, 니켈, 알루미늄, 철 등을 팔아서 한국 돈 9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예배시간에 온 교인들을 일깨우며 간증을 했는데 그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남아공 한국 대사관 주관

6.25 침전 기념행사가 케이프타운 공군본부에서 있었습니다. 69년 전 한국전에 참여한 남아공 공군 생존자가 두 분이 케이프타운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박종대 대사님께서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치하하시고 후손들에게 학자금을 수여하셨습니다.

가이드 교육

제가 2주간 리빙스톤 투어리즘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강의실 교육과 실습 및 견학을 잘 마쳤고 이제 과제물 제출과 필기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과 교육비가 좀 들었지만 정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은 유익한 교육이었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문화와 역사 지리 등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 자기 발전은 물론 아프리카를 더 깊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선교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 주시는 기도 덕분에 한 해의 반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달은 몇몇 행사와 교육 영 육간에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교통 체증을 뚫고 아찔한 사고를 모면하는 등,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사역을 정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응원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 각할수록 고맙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선교지는 선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지인들의 자립심이 길러졌고 주인의식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주변에서 도우 심의 손길을 통해 눈 수술을 잘 마치고 무사히 사역지로 돌아왔고 이제 며칠 후에 도착할 청운 청년부 단기 팀 맞을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교통 편과 사역지에서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활기 넘치는 단기 팀 활동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1.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도록.
2. 가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겨내는 현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신진대사와 자기희생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딸아이가 아르바이트하는 쇼핑물 부근 가로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뒹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가을 낙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운치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계절이 깊어가고 있음을 실감 나게 했습니다.

바람결에 여기저기 제멋대로 날리는 낙엽들이 거리를 을씨년스럽게 한다거나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그 나뭇잎이 수명을 다한 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 나무의 신진대사가 그만큼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움츠려 있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부지런히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을 겨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겨울을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둘째, 떨어지는 낙엽은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낙엽이 떨어진 꼭지를 보신 적이 있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 꼭지를 보면 새 부리처럼 생겼는데 파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듬해 봄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나뭇잎은 떨어져야만 하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지저분하게 느끼는 낙엽들입니다.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추워도 미물인 식물조차 끊임없는 신진대사로, 자기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신앙의 신진대사는 왕성해야 할 것이며 또 자기희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자기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지 만약 겨울이 덥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춥다고 위축되지 말고 자기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따라 자기희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신진대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이태한 목사

1. 창립 주일 말씀 사경회와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롭도록.
2. 사경회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와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3. 환란 중에 있고 비자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창세기35: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